

7장

외국과의 관계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고지도

1. 외국에서 제작된 우리나라의 고지도

1) 서론

지도란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도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명들이 고지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동서양의 고지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본론

서양에서 제일 먼저 세계지도를 만든 것은 프톨레마이오스(Ptolemaios)이지만, 그의 지도에서 동양은 인도와 스리랑카까지였다. 프톨레마이오스의 뒤를 이은 것은 로마와 이슬람-아랍이었는데, 로마 지도는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이른바 T·O 지도의 성향을 띄게 되었으나, 이슬람-아랍 지도는 동양 여러 나라와의 교역을 통하여 얻은 실제적인 지리지식이 반영되어 제작되었다. 교역을 목적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 즉, 신라를 맨 처음 찾은 세력도 이슬람-아랍 상인들이었는데,

1154년 알 이드리스이(Al-Idrisi)가 만든 지도에 신라는 4~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표시되었다. 그 당시 신라의 대외 무역 중심지였던 청해진을 방문한 이슬람-아랍 상인들은 그 곳이 신라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여 기록한 결과일 것이라고 필자는 해석한다. 신라가 멸망한 후 이슬람-아랍과의 무역은 주로 고려의 예성강 하구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시 이슬람-아랍 상인들은 고려를 “코리”라고 불렀고, 지금도 한국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 알 이드리스이가 만든 지도 이후 한동안 이슬람-아랍지도에는 한국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것은 아마도 한국에 관련된 지도를 아직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되는데, 그들이 후에 제작한 지도를 보면 한국 관련 정보가 있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흔적은 찾아볼 수 있다.

서양에서 본격적인 지도 제작이 시작된 것은 15세기 문예부흥을 맞은 이탈리아와 해양왕국을 건설하고자 노력한 엔리케(Enrique) 왕자가 있던 포르투갈에서였다. 이탈리아는 중세 로마의 T·O 지도에서 탈피하여 실제적인 지도를 제작하였지만, 콜럼버스 같은 탐험가들의 배출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동양에 관한 관심은 주로 중동 지역까지였다. 그에 비하여 포르투갈은 교황청의 중재와 함께 극동으로의 진출에 적극적이었다. 포르투갈의 동양 진출에는 이슬람-아랍 세력이라는 장애물이 있어,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서양사에는 간략하게 포르투갈의 강력한 함포를 적재한 쾌속선이 이슬람-아랍의 상선단을 격파하여 동양 무역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고만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누락된 듯하다. 포르투갈이 이슬람-아랍의 지리적 정보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동양에 진출하는 포르투갈에게는 길잡이가 필요하였고, 이슬람-아랍이 그런 역할을 수행했으리라고 짐작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한국 관련 지도들이다. 포르투갈이 지도를 제작한 것은 해양왕국의 건설을 추진하던 15세기 후반부터였다. 프랑스 국립 박물관에 소장된 로포호뎀(Lopo Homem)의 1554년 지도와 1560년 벨유의 지도에는 한국으로 추정되는 반도형의 나라가 있지만 나라이름은 표시되지 않았고, 1570년의 바스 두라도(Durado)의 지도에는 한국으로 추정되는 반도에 “Costa de Comrai” 즉, 콤라이 해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는 Corai에 ‘m’이 착오로 삽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플란시우스(Plancius)는 1596년 한국을 반도로 그리면서 “Corea”라고 표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Corai가 음운 규칙에 따라 변형된 것이다. 루이스 테이세이(Louis Teixeira)라는 1595년 오르텔리우스(Ortelius)의 지도첩에 한국을 섬으로 표시하면서 중부에 “Cory”라는 명칭을 기입하였다. 이 이름은 나라 이름도, 지방 이름도, 혹은 도시 이름도 아니었고 다만 아랍지도에 나오는 명칭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베껴 적어놓은 것이라 추

정된다. 이 ‘코리’ 라는 이름은 포르투갈의 기관에서 근무했던 린쇼텐(Linschoten)의 지도에도 나오고, 1601년 스페인의 A. 헤레라(Herrera)가 한국을 섬으로 그린 지도에서도 볼 수 있다. 포르투갈의 동양 교두보였던 말라카에서 태어난 고딩뉴 데 에레디아는 1615년 동해에 “Mar Coria”, 즉 한국해라는 명칭을 붙였다.

1580년경부터 포르투갈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포르투갈의 지도제작은 기력을 잃었고, 이에 네덜란드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포르투갈의 해외 기관에 근무하던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포르투갈 쪽 정보가 유입되었고, 그로 인해 암스테르담과 안트와프에서 인쇄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네덜란드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후반까지 지도제작 산업을 주도했는데, 오르텔리우스, 메르카도르(Mercator), 블라우(Blaeu) 그리고 혼디우스(Hondius) 등의 지도제작의 거장들을 배출하였다. 1655년 암스테르담에서 발간된 마르티니(Martini) 신부의 한국지도는 한국이 반도로서 알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네덜란드의 지도제작자들이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17세기 후반 프랑스는 상송(Sanson)의 등장과 함께 지도제작 산업에 진출하여 18세기 후반까지 지도 생산의 중심이 되었다. 이는 지적인 호기심과 함께 해외 식민지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때문이었다. 해양대국의 꿈을 키우던 영국 역시 지도제작에 열의를 보였다. 영국은 베네룩스 3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 지도제작에서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나, 주된 영향은 프랑스로부터 받았다. 베네데토 보르도네 이후 상당수의 지도가 인도양 너머의 바다를 “Oriental Ocean”, 즉 동대양으로 표기하였고 상송의 지도 역시 그러하였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한국이 독립 왕국임이 널리 알려지면서 동해의 표기에 변화가 나타났다. 기욤 드릴(Guillaume De l’Isle)의 지도 등 일부 지도만이 동해를 “Oriental Sea”로 표기하였고 니콜라 드 페르(De Fer)는 1705년 만주족이 동해를 “Oriental Sea”, 즉 동해라고 부른다는 설명을 지도의 여백에 기입하기도 하였으나, 이 시기부터 한국해라는 표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18세기에는 한국해의 표기가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그 이유는, 지형적으로 볼 때 일본이 동북에서 서남으로 비스듬히 누운 형상임에 반해 한국은 북에서 남으로 곧게 뻗은 형상이며, 서양식 지도에서는 한 나라의 오른쪽에 있는 바다를 왼쪽의 나라 이름을 따라 작명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쇄국주의에도 불구하고 동해를 ‘한국해’ 라고 표기하였고 선교사로서 북경에 간 A. 토마 신부, 몽탈누스, 타베르니에, 캠퍼 등의 저서와 지도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였다.

서양지도에 있어서 한국 관련 표기의 정형이 된 것은 1735년의 J. B. 당빌(D'Anville)의 『한국전도』이다. 본래 뒤알드(Du Halde) 신부의 『중국백과사전』의 부록 『중국과 그 인근 국가』라는 지도첩에 실려 있는 한국전도는 역사적으로 최초로 제작된 한국만의 전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지도이다. 이전부터 중국에 진출한 선교사들에게 중국 황제들은 두 가지를 요구하곤 했다. 첫째는 대포를 만드는 것이며 둘째는 중국 및 세계지도의 제작이었다. 특히 청나라의 강희제는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서양식으로 중국 전역을 측량하여 실측지도를 만들라고 요청하였는데, 선교사들은 일부 지역을 실제로 측량하기도 했지만 실측하기 어려운 지방은 중국 전통의 지방도에 의존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10여년에 걸쳐 만주를 실측한 선교사들이 중국과 한국의 국경선을 측정하고자 할 때 강희제가 직접 나서서 국경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었다고 한다. 청국의 근본이 만주였던 만큼 강희제의 국경선 확정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었다. 그 후 청국은 1900년대 일본과의 회담에서 압록강 본류를 국경의 기점으로 마음대로 정했으며, 북한과는 한국 전쟁이 휴전된 후 압록강을 반분하는 것으로 국경을 정했다. 통일 한국을 이룩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국과의 회담을 통해 국경선을 다시금 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에 얼마나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 선교사들은 조선전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만주 주재 관원들과 자신들이 훈련시킨 전문가를 조선에 파견하였고, 그 전문가는 신의주에서 서울까지의 걸음으로써 거리를 측정하는 한편, 한양에서 궁중 비장의 조선전도를 입수하였다. 국경 근방의 몇 지점에서 삼각 측량을 통해 입수된 조선전도가 상당히 정확하다고 판단하여 자신들이 작성한 조선전도와 함께 중국 및 인근 지역의 지도를 도록으로 만들었다. 당빌의 지도는 그로부터 150여년 후 김정호의 『청구도』와 『대동여지도』가 나올 때 까지 가장 훌륭한 지도로 인정되었고, 여러 나라의 지도들은 당빌의 지도를 그대로 베끼기도 하였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당빌의 지도는 몇 가지 아쉬움을 남긴다. 첫째, 그는 바다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본 고장에서 실제로 부르는 명칭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둘째, 울릉도와 독도를 한반도 가까이에 찬산타오와 팡링타오로 기록하였으며 제주도에 대해서는 당시 유럽 지도들의 오류를 그대로 따라서 “퐁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프랑스와 영국의 많은 지도 제작자들, 예컨대 장비에, 본, 보공디, 뷰이슈, 셸러, 더들리, 몰, 세넥스 등이 한국 관련 지도에서 다른 부분은 당빌의 방식을 따랐으면서도 바다 명칭만은 “한국해”라고 표기한 것은 자기들 각자 판단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18세

기 말의 라페루즈(La perouse), 크루젠스틴(Krusenstern), 시볼트(Siebold) 등의 저서, 지도들이 나오면서 바다 명칭을 “일본해”로 표기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엽까지 한국해라고 표기하는 지도들이 상당수 있었다. 영국의 지도들이 일찍부터 라페루즈의 영향을 받아 일본해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프랑스 지도들은 한국해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19세기의 지도들은 한국 관련 지도의 경우 당빌의 지도 형태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전반기에는 기욤 드릴의 반도 북쪽을 비대하게 그린 지도들도 있었고 중반 이후부터 한국의 형태가 보다 날렵하게 그려진 지도들이 많이 나타난다. 한국에 특히 중요한 지도로서, 1835년 클라프로트(Klaproth)가 펴낸 『삼국통람도설』의 부록에 수록된 한국지도가 있다. 클라프로트는 여러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고, 중국어, 일본어, 한글의 기초까지 터득한 인물로서, 당대 유럽에서는 동양학 대가로 인정을 받아 프랑스 국립 동양어대학 교수를 역임했고 유럽 각국 도서관의 동양학 자료를 정리한 바가 있었다. 그는 영국 정부의 기금으로 『삼국통람도설』과 그 부록인 『삼국지도』를 작성하였는데, 삼국지도에서 한국 부분은 기욤 드릴을 따랐기 때문에 당빌 지도에만 익숙한 사람은 어색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의 한국지도는 일본에 거주하던 중 중국계 학자 하야시 시헤이의 지도를 그대로 옮긴 것인데, 원저자인 하야시 시헤이는 당시 일본인들 중 독도, 일본어로 ‘다케시마’ 혹은 ‘다케노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분명히 조선, 즉 한국의 영토라는 설명을 자세히 써 넣은 귀중한 자료이다. 클라프로트는 원저자의 설명을 그대로 옮겨 “Takenosima a la Coree”, 즉 한국령 다케노시마라고 확인시켰다.

러시아의 지도는 비교적 늦게 18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는데 주로 자국의 국내 지도제작에 한정되었다. 지도제작 초기에 프랑스 기욤 드릴의 동생인 J. N. 드릴의 지도하에 시베리아의 지도를 제작하였는데, J. N. 드릴은 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 지도의 2/3 이상이 동해를 “한국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일본과 관련이 있었던 제작자들이 “일본해”라고 표기한 경우도 물론 있다. 부동항 획득에 열정적이었던 러시아 함대는 몇 차례 동해를 탐사하여 독도를 러시아 수로지에 기록하기도 하였다.

일본 지도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마테오리치(Matteo Ricci)의 1602년 『곤여만국전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의 명칭은 18세기 후반까지 표기하지 않았다. 단지 일본의 북쪽에 있다는 뜻으로서 ‘북’으로 기록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가, 19세기 초부터 서양 지도들의 영향을 받아 ‘일본해’라는 표기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이상태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870년까지의 일본 제작지도 16종이 “조선해”라고 표기하였고, 1870~1900

년까지는 4종의 지도가 ‘조선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였다. 이후 ‘일본해’ 표기로 통일된 것은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 이후이다. 도쿠가와이의 쇼군 시대에 동해에 대한 공식 명칭은 ‘조선해’였다. 왜냐하면 일본은 자국의 태평양쪽을 ‘대일본해’라고 표기함으로써 세계화의 야심을 표현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일본해’의 명칭이 외국의 인정을 받지 못하자 승전 이후 축제 분위기에 맞춰 승전지였던 동해를 ‘일본해’로 바꾼 것이다.

3) 결론

고지도의 형태가 현대 지도와 다르고 한국에 관련된 표시가 계속 형태가 바뀐다고 해서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국제 국명인 코리아, 바다의 명칭, 국경선 문제, 문제시되는 독도의 영유권 등 슬한 현안과 예견되는 향후의 외교적 논제들에 대한 해결책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고지도는 우리의 주장에 유리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며, 불리한 경우를 나타내는 예와 시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억지 논리를 편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내세우며 주장하는 것 역시 옳지 못하며, 오히려 스스로 상대방에게 반박의 여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주장만 정당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주장도 정당하다”는 쪽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이렇듯 고지도가 옛날에 그려진 지도이면서 현재 쟁점이 되는 문제들은 물론 국경선과 같은 향후의 사안에 대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일종의 무기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서정철

2. 중국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고지도

1) 조선시대 이전의 중국의 영향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명, 청 이전의 고지도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때문에 조선시대 이전의 고지도를 통한 중국의 영향 여부를 알기는 쉽지 않지만 남아 있는 문헌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당과 신라, 송과 고려 사이의 빈번한 문화교류는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고, 지도도 그 중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정황은 어떠했을까? 이에 대해 중요한 단서가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록이 있다. 하나는 중국의 지도제작기술 또는 원칙에 관련된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지도 실물의 유입의 증거가 되는 기록이다.

(1) 제도육체(制圖六體)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권2, “당신라랑혜화상탑비(唐新羅朗慧和尚塔碑)”(최치원)에는 당 태종이 당시 진덕여왕의 명을 받아 당에 있던 김춘추를 통해 산라에 『진서(晉書)』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¹⁾ 바로 이 진서 『裴秀傳』에 인용된 『우공구역지역도(禹貢九域地域圖)』의 서문에 “분율(分率)”, “준망(準望)”, “도리(道里)”, “고하(高下)”, “방사(方邪)”, “우직(迂直)” 등의 지도제작과 관련된 이론이 있는데 원래는 정해진 호칭이 없고 청 후기의 학자들이 이것을 정리하면서 “제도육체”라고 정리해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²⁾ 학계에서는 대체로 분율은 축척, 준망은 방위 또는 좌표, 도리는 거리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데는 동의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개념과 실제 지도제작에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이것이 배수가 처음 창안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정리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1) 『東北古史資料叢編(第3卷)』(孫進己編, 1990, 遼沈書社, 634)에서 재인용, 【清】劉喜海校錄, 『海東金石苑』卷二, 『唐新羅朗慧和尚塔碑』, “論曰: 麟史不云乎, ‘公侯之子孫必復其始!’ 則昔武烈大王爲乙粲時, 爲屠滅猶乞師計, 將真德女君命, 陞加邵陵皇帝, 面陳 懇奉正朔, 易服章 天子嘉許, 庭賜華裝, 受位特進. 一日, 召諸番王子宴, 大置酒, 堆寶華, 俾恣滿所欲. 上乃杯觴則禮以防亂, 繪綵則智以獲多. 衆辭出, 文皇目送而?曰: ‘國器’. 及其行也, 以御制并書『溫湯』, 『晉祠』二碑暨御撰『晉書』一部賚之. 時蓬閣寫是書裁竟二本, 上一錫諸君, 一爲我賜. 復命華資官祖道青門外, 則寵之代, 禮之厚, 設譬盲乎智者足亦駭耳目, 自茲吾土, 一變至于魯, 入世之後大師西學而東化, 加一變至于道, 則莫之與京, 舍我誰謂, 偉矣哉!”

2) 辛德勇, 2007, “準望釋義—兼談裴秀制圖諸體之間的關係以及所謂沈括制圖六體問題”, 九洲(第4輯), 243.

“제도육체”는 전통적인 지도제작 이론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학사에 큰 의의를 가지지만 이것이 한국의 고지도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진서』의 수입과 더불어 이미 7세기에 상관 지식이 수입되었다는 사실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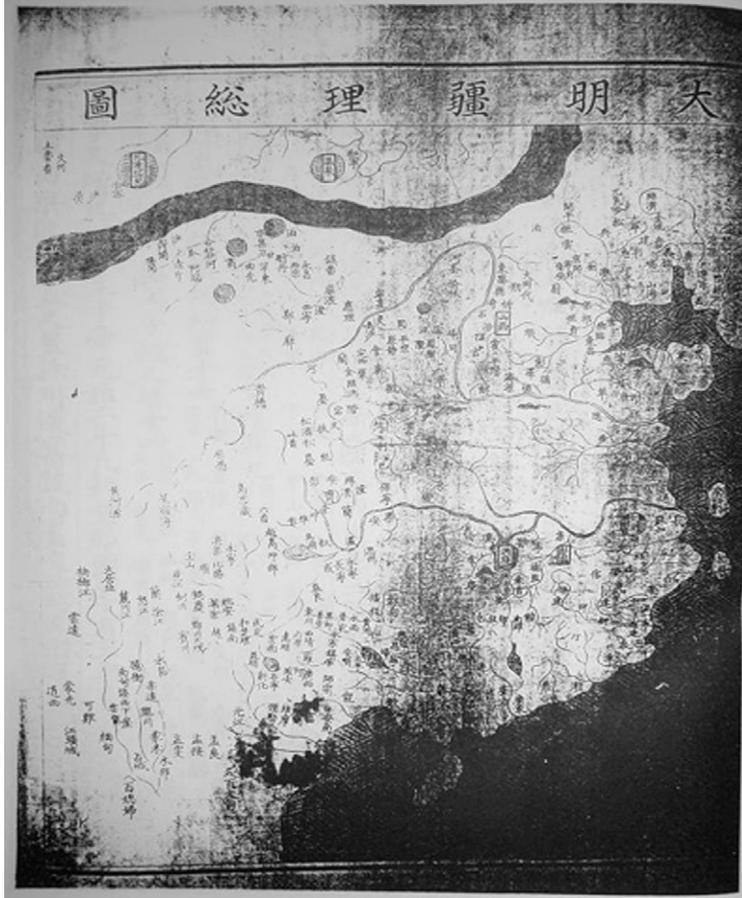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진서』등과 같은 정사(正史)의 수입이다. 정사에 지리지를 수록하는 것은 『한서(漢書)』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지리지에 기록된 중국 각지에 대한 내용은 직접 수집의 한계가 있었던 우리나라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 수집의 통로였을 것이다. 이러한 정사의 수입은 삼국시대 뿐 아니라 고려, 조선에까지 계속되었는데 직접적으로 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도제작에 반영할 만한 중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나 중국의 제작 기술 등에 관한 정보에 생소하지는 않았을 것임은 추측해 볼 수 있다.

(2) 『역대지리지장도(歷代地理指掌圖)』의 수입

『삼국유사(三國遺事)』권1 『紀異』, “말갈, 발해” 조에 “지장도(指掌圖)”를 인용하며 발해, 음루, 속신, 흑수 등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원명(原名)은 『역대지리지장도(歷代地理指掌圖)』이고 북송(北宋) 말기와 남송(南宋) 초기 사이의 역사지도집이다. 『삼국유사』에도 ‘按東坡指掌圖’라 쓰여 있듯이 소식(蘇軾)의 저작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에는 대체로 세안례(稅安禮)의 저작이라고 보고 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소식의 이름을 가탁(假託)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曹婉如, 1990, 31)

우리나라에는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역대지리지장도』가 있는데 모두 명대 이후의 판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명대 이후의 판본만이 남아 있지만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보아 고려 후기에 이미 식자들에게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아있는 조선시대 이전의 고지도가 없으므로 이 책이 당시 고려의 지도제작에 영향을 주었는지 고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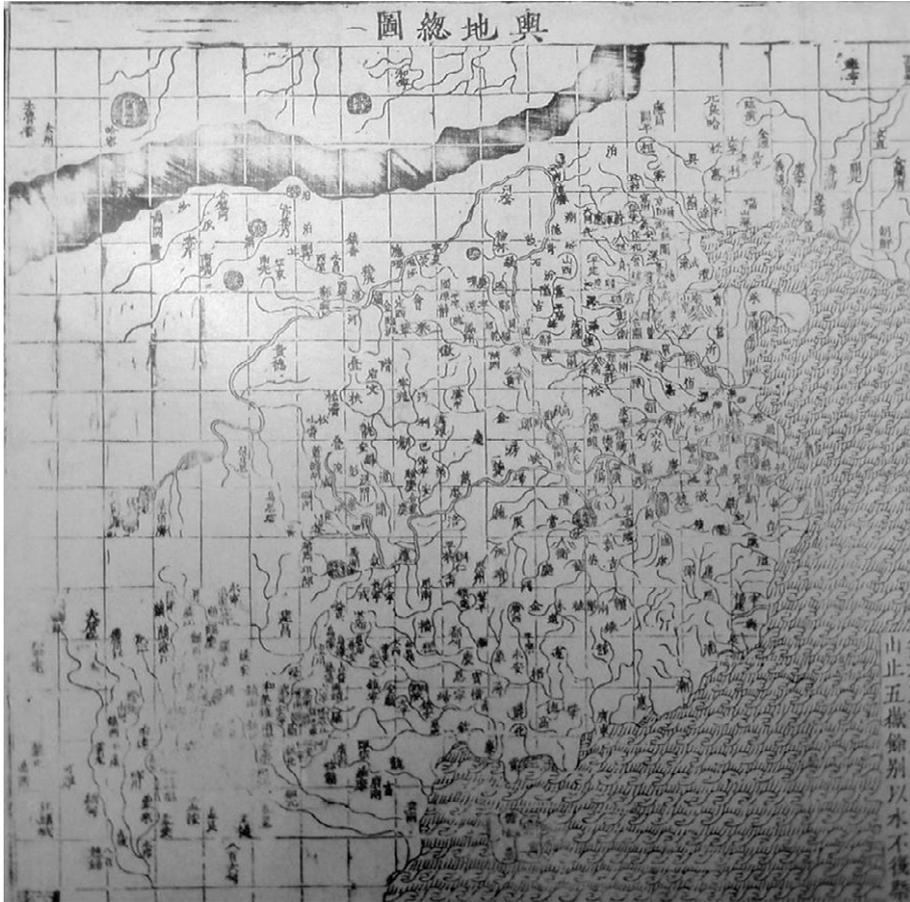
현재 전해 내려오는 이 책의 판본 중에 가장 이른 것은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남송시대의 목판본이다. 남송 판본은 『성조승개폐치군도(聖朝(宋)升改廢置州君圖)』가 마지막이지만 명대 판본은 송 이후 시대의 지도까지 실고 있다. 규장각 소장본의 『역대지리지장도』 중 『대명강리총도(大明疆理總圖)』를 보면 지도의 윤곽과 내용이 명 나홍선(羅洪先)의 『광여도(廣輿圖)』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광여도』 초간본의 간행 연대가 1555년 전후로 추정되기 때문에 규장각 소장



[그림 7-1] 『大明疆理總圖』

자료: 규장각

본은 그 이후의 것이다. 이 지도에 『광여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조선시대 제작된 지도를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광여도』의 영향을 받은 지도는 전해지는데 『광여도』의 조선 전래와 관련된 문헌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송대의 것은 아니더라도 『광여도』 초간본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대지리지장도』가 우리나라에 남아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림 7-2] 『輿地總圖』

자료: 규장각

2) 조선에서 제작한 지도와 중국의 원도(原圖)

조선시대의 지도는 실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지도를 통해 직접 중국의 영향을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지도를 직접적으로 이용한 지금의 세계지도의 개념인 천하도는 그 영향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증거이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천하도를 만들 때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지도를 이용하는 것은 보편화 된 일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로 조선에서 제작한 지도와 그 원도가 되는 중국의 지도를 찾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관방지도(關防地圖) 등은 다른 장에서 자세

히 다루므로 여기선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1) 『왕반지여지도(王泮識輿地圖)』³⁾

이 지도는 현재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지도 하단에 명대의 학자 왕반(王泮)의 지(識)와 조선인의 발문(跋文)이 있어서 지도제작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이 지도 역시 조선시대의 여타 세계지도와 같이 중국에서 들여온 지도에 조선과 일본 등의 지도를 덧붙여 만들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지도는 조선 인조 5(1637)년에서 효종 3(1652)년 사이에 제작된 것인데 중국의 원도는 왕반의 지에 “甲午仲夏”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명 만력 22(1594)년 전후의 지도로 짐작된다.

이 지도는 지도의 윤곽은 아프리카와 인도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명혼일도(大明混一圖)』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대명혼일도』에 비해 대륙의 모양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 반면, 부호의 사용 등 지도의 표현에서는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 지도 상단에 노아간도사(奴兒干都司) 관할의 위(衛)와 소(所)를 열거해 놓았다. 지도의 발문을 보면 원래의 지도에 『대명관제(大明官制)』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참고하여 고증하고 내용을 덧붙였다고 해 원래의 지도에 적지 않은 수정을 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이 지도가 『대명혼일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원래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지 더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2) 『광여도(廣輿圖)』의 영향을 받은 조선의 지도

『광여도』는 중국 지도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도이다. 이 지도는 1555년 무렵에 나홍선(羅洪先)이 원대(元代) 주사본(朱思本)의 『여지도(輿地圖)』를 기초로 재편집하여 목판 지도집의 형태로 간행했기 때문에 보급에 유리하여 많은 종류의 판본과 파생본을 탄생시켰으며 청 후기 까지도 이 계통에 속하는 지도들이 유행하게 된다. 또 이 지도는 마르티누스 마르티니(Martinus Martini, 1614~1661)에 의해 서양으로 전파되어 마르코 폴로에 의해 잘못 전해진 아시아에 대한

3) 이 지도의 제작 연대, 제작 과정 등 상관 내용은 『中國古代地圖集』(明代)의 뒤쪽에 있는 임금성(任金城), 손과청(孫果淸)의 “王泮題識輿地圖朝鮮繪增補本初探”과 『우리 옛 지도와 그 아름다움』에 있는 한영우의 글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한국본 여지도”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지도에 대한 명칭이 두 개의 글이 각기 다르므로 여기선 편의상 『王泮識輿地圖』라 부른다.

정보를 수정하는데 기여하는 등 동서양의 지도 교류에도 이바지하게 된다(김 요한역, 2006). 중국의 지리서와 지도 수집에 적극적이었던 조선도 이 지도를 들여왔을 테지만 언제 유입되었는지 어떠한 경로로 들여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기 힘들다. 그러나 앞에서 『역대지리지장도』를 언급할 때 지적했듯이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역대지리지장도』는 명대 판본으로 보이는데 이 지도집의 『대명강리총도』의 모습이 바로 『광여도』 초판본의 『여지총도』와 매우 흡사하다. 『광여도』는 판본에 따라 그 내용이 매우 다른데 만력 이전의 판본에는 만리장성이 없고, 만력 7(1579)년 이후의 판본에는 장성이 있다.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광여도』의 판본은 거의 이 판본을 기초로 한 것이다(任金城, 1994, 76).

현재 『천하여지도(天下輿地圖)』(송실대학교 소장)와 『천하대총일람지도(天下大摠一覽之圖)』(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지도를 통해 『광여도』의 영향을 알 수 있다. 송실대학교의 『천하여지도』는 목판본과 채색필사본 두 종류가 있는데 다른 내용은 거의 같지만 조선의 모양이 확연히 다르다. 채색필사본의 조선은 팔도의 명칭과 수도가 표시된 것 외 다른 내용이 거의 없으며 옆으로 넓적한 모양인 반면 목판본은 좀 더 긴 모양으로 윤곽이 실제와 더 가깝고 내용도 훨씬 상세하다. 지도 상단 말미에 “乾隆丁卯孟冬”이라 적어 제작연대(1747)를 밝히고 있지만 그 앞에 기록한 각 지역에서 북경에 이르는 거리를 적은 것은 명대의 행정구획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도에 적혀있는 제작연대는 원도의 제작연대이고 송실대 소장본은 건륭 정묘년의 판본을 기초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도의 전체적인 윤곽은 초판본 『광여도』의 『여지총도』와 비슷하다. 이 지도는 기존의 지도와는 달리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여도』초판본에서 보이는 특징이며 이 계통의 지도와 다른 계통의 지도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해남도는 둥근 모양의 정사각형에 가깝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광여도』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이다. 『천하여지도』의 윤곽은 이렇듯 『광여도』의 『여지총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여지총도』에는 없는 만리장성이 그려져 있다. 이 장성의 모양은 같은 책 안에 있는 『요동변도』와 흡사해 『천하여지도』를 제작할 당시에 『여지총도』 뿐 아니라 『광여도』의 여러 부분을 참고한 것으로 짐작된다. 지도 상단의 『대명일통지』와 관계된 기록도 이 지도가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송실대 소장본의 필사본과 목판본의 조선 모양이 확연히 다른 것은 이 두 지도의 원도에 조선이 빠졌거나 매우 소략했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실제로 『광여도』 『여지총도』의 조선부분은 명칭만 적혀 있을 뿐 그 윤곽조차 없다. 이렇게 조선을 아예 그리지 않거나 굉장히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은 중국의 고지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필사본의 조선 모양이 더 소략한 것은 목판본 지도를 간행할 때 더 자세한 조선 지도를 찾아 보충해 간행했다고 보아 목판본 지도의 제작 연대를 더 후대로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알기 힘들다. 이 두 지도는 판각과 필사가 모두 비교적 세심하고 정교해 굉장히 공을 들여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단에 기록된 중국의 각지의 거리 정보와 지도에 상세하게 표현된 내용으로 보아 이 지도는 중국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자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미 청나라가 들어선지 100년이 지난 후의 지도임에도 명대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아 시의성은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도는 비교적 완전하게 『광여도』의 윤곽을 간직하고 있으며 문자 기록과 지도에 표현된 내용으로 비록 명대의 것이긴 하지만 중국의 전반적인 지리적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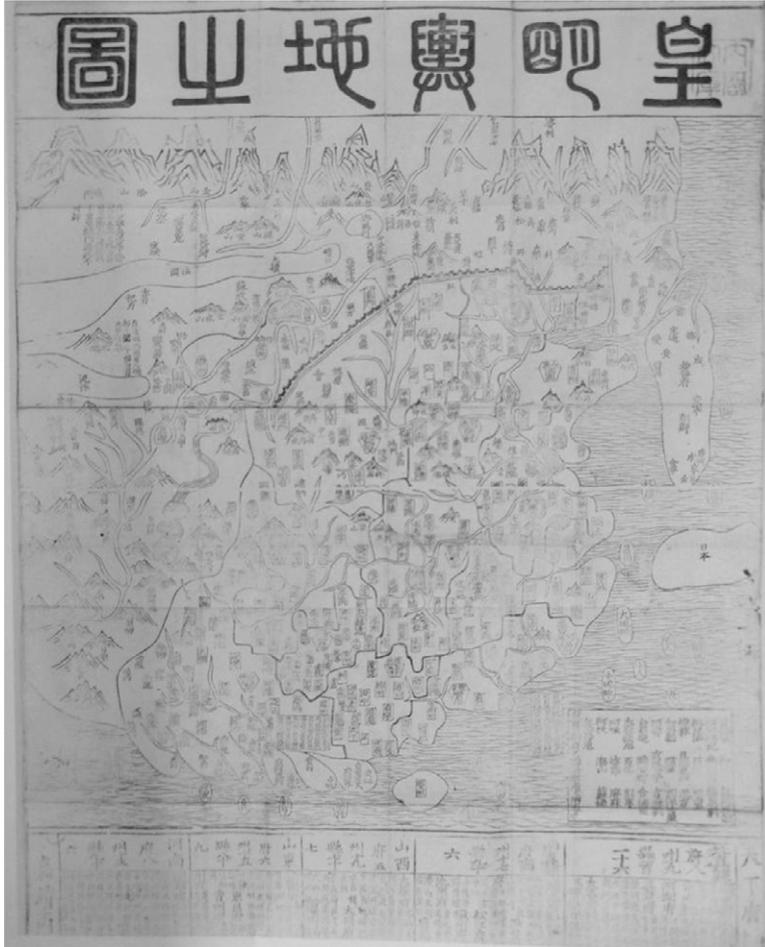
앞에서 『광여도』는 중국의 지리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도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록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천하여지도』등의 지도에 있는 『광여도』의 흔적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기록에 없다고 해서 전래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에 있는 명대 육응양(陸應陽)이 지은 『광여기(廣輿記)』의 청 판본, 명말청초의 학자 고조우(顧祖禹)의 『독사방역기요(讀史方域紀要)』등에 실려 있는 지도 또한 『광여도』를 기초로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관련 서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남아있는 고지도를 통해서도 지도제작에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 김수흥의 『천하고금대총편람도(天下古今大摠便覽圖)』

이 지도는 1666년에 김수흥이 펴낸 역사지도이다. 지도 상단에 『대명일통지』를 인용해 각 지역에서 북경에 이르는 거리를 적어 넣고, 당나라 두우(杜佑)의 『통전(通典)』을 인용해 각 지역에서 당의 서경(서안)에 이르는 거리를 적어놓았다. 지도의 윤곽은 실제의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각형에 가까운데 이것은 지도보다는 지도에 기록되는 문자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도에 문자를 기록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도 부호 주변에 상관 정치연혁이나 인물사적, 명승고적 등을 간결하게 기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도의 상, 하단에 당대의 행정 구획등급이라든가 관할 지역의 수, 호구(戶口), 세액(稅額) 등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자기록을 위주로 한 간략한 형태의 역사지도의 시작은 송대 이후의 지리학자가 문자기록을 중시했던 경향의 산물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李孝聰, 2000, 255).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런 지도가 출현하는

것은 16세기에 접어들어서이다. 대표적인 지도로는 명 가정 34년(1555) 복건 유시(喻時)의 『고금형승지도(古今形勝之圖)』가 있고, 이보다 연대는 앞서지만 덜 알려진 지도로는 일본 내각문고 소장인 『황명여지지도(皇明輿地之圖)』⁴⁾도 있다. 둘 다 『대명혼일도』의 계통의 윤곽이지만 『황명여지지도』보다 원도에 가까운 모양을 갖추고 있다. 『고금형승지도』는 현재 스페인에 소장되어 있



[그림 7-3] 『皇明輿地之圖』

4) 藤井讓治·杉山正明·金田章裕 編, 2004, 『繪圖·地圖からみた世界像』, 京都大學大學院文學課, 圖版 11. 『황명여지지도』의 설명에 의하면 이 지도는 명 가정15년(1536)에 금계의 오계(吳愷)가 『호천성상지도(昊天成象地圖)』와 함께 판각한 목판지도이다. 승정 4년(1631)에 일본에 전래되었다.



[그림 7-4] 『古今形勝之圖』

는데 서방으로 전래된 최초의 중국전도이다. 지도의 윤곽이 『황명여지지도』와 거의 유사하지만 이 지도는 『양자기발여지도(楊子器跋輿地圖)』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고금형승지도』류의 지도가 김수홍의 지도에까지 영향을 준 것이다. 그가 제작한 『천하대총편람도』는 전형적인 지도와 문자가 결합된 형식으로 역사학습(讀史)을 위해 제작된 것이다. 중국대륙은 직사각형의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도상에 “大明一統路程記”와 “唐杜佑通典路程記”를 적어 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도 왼쪽에는 『회남자(淮南子)』를 인용하여 천하의 크기 등을 밝히고 마테오 리치가 전파한 지리 지식도 기재하는 등 이 지도의 제작목적이 지도에 있기 보다는 학습을 위한 것임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있다.

현전하는 명, 청시대 중국의 고지도 가운데 전국지도의 제작상황을 보면 『대명혼일도』를 시작으로 약 100여년이 지난 후에 『양자기발여지도』가 그 후 몇 십 년의 차이를 두고 『광여도』가 제작되었으며 그 후의 『황여전람도』는 『광여도』와 거의 200년의 시간차가 있다. 물론 그 사이에 제작된 수많은 다른 판본들과 파생본 지도들이 있지만 이미 유실되어 그 흔적을 찾기 힘든 것들도 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대표적으로 지금은 찾기 힘든 원대 지도의 흔적을 담고 있어 송대와 명대 사이 중국 지도학사의 한 부분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고, 『왕반지역지도』 또한 명대 초기의 지도에서 『광여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을 담아내고 있으며 『천하여지도』는 중국의 대표적인 지도인 『광여도』의 흔적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 내용은 훨씬 풍부하다.

이렇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중국의 고지도들을 조선에서 제작한 천하도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조선과의 지도 교류에 있어서 중국이 주로 밖으로 내보내는 입장이었다면 조선은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는데 조선은 단순히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관심사와 필요에 따라 지도를 수정하고 보충하기도 하면서 내용과 형식에 변화를 주었다. 이로 인해 조선에서 제작한 천하도는 중국의 원도와 조선의 특징을 잘 결합하며 지도학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지도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이명희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2,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
- 藤井讓治·杉山正明·金田章裕 編, 2004, 繪圖·地圖からみた世界像, 京都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 한영우·안휘준·배우성, 1999,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 宋本歷代地理指掌圖, 上海古籍出版社, 日本東洋文庫所藏本影印.
- 汪前進, 1994, “歷史上中朝兩國地圖學交流,” 中國科技史料, 15(1), 3-18.
-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 李孝聰, 1996, 歐洲收藏部分中文古地圖彙錄, 國際文化出版公司.
- _____, 2000, “20世紀以前的中國傳統輿圖,” 文化的饋贈—漢學研究國際會議論文集(史學卷), 北京大學出版社, 248-258.
- 任金城, 1994, “廣輿圖在中國地圖學史上的貢獻及其影響,” 中國古代地圖集(明代).
- 張璉, 1990, “宋明政府之域外賜書與書禁探研—以韓(高麗, 朝鮮)日二國爲例,” 第3屆 中國域外漢籍國際學術會議論文集(臺北), 145-159.
- 曹婉如 等編, 1990, 中國古代地圖集(戰國—元), 文物出版社.

曹婉如 等編, 1994, 中國古代地圖集(明代), 文物出版社.

彭斐章 主編, 1998, 中外圖書交流史, 湖南教育出版社.

Black, J., *Visions of the World: a History of Maps*(김요한 역, 2006, 세계 지도의 역사, 지식의 숲).

Mackay, A. L., 1975, Kim Su-Hong and the Korean cartographic tradition, *Imago Mundi*, 27, 29-38.

3. 일본에 영향을 미친 우리나라의 고지도

-행기도를 중심으로-

1) 백제 계통의 행기 스님과 행기도

행기 스님은 일본 측량역사에서 측지학자(測地學者) 제1호로 학자들 사이에 인정되고 있는 백제에서 귀화한 왕인박사(王仁博士)의 자손으로서 서기 668년 화천(和泉)의 국가 대판부(大阪府)의 호족 고지(高志)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러한 점은 측량술이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遠藤博, 1994; 김추운, 1998, 14-15). 따라서 행기도(行基圖)에 관한 연구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측량술, 지도발달사, 나아가 정치적 관계 등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행기도는 행기(行基菩薩, 668~749)가 일본 전국을 행각(行脚)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전해지는 지도이다(日本國際地圖學會編, 1998, 61). 작성 연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내(畿内) 중심으로 율령제의 가도(街道)=7도를 모든 방향으로 선을 긋고, 여기에 둥그스름해진 지방들을 연결한 형



[그림 7-5] 행기의 초상

자료: 김추운(1998), 15.

태의 일본지도를 말한다. 즉 기본적인 형태로서 헤이안쿄[平安京=교토]가 있는 아마시로노쿠니[山城國]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지방을 계란형(주로 타원형 혹은 원)으로 나타내고, 이것을 연결한 것으로 일본열도의 대략적인 윤곽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7-5). 또한 헤이안쿄[平安京]로부터 5기(畿) 7도(道)의 큰 도로가 펼쳐져 모든 지방과 연결되어 있다. 지도에 따라서는 지방의 군의 수와 밭의 면적 등을 기재하고 있는 것도 있다.

현재 행기도는 나라奈良시대의 승려 행기가 만든 것이라는 전승이 있지만,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 지도가 먼 뒷날까지 일본지도의 원형으로서 이용되고, 에도[江戸]시대 중기에 지도학자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와 이노우 타다타카[伊能忠敬]가 나타나기 이전의 일본 지도는 기본적으로 이 행기도를 기초로 하였다고 한다. 그 때문에 이러한 일본지도를 일괄하여 '행기도' 혹은 '행기식 일본도' 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2) 일본지도의 원형으로서 행기도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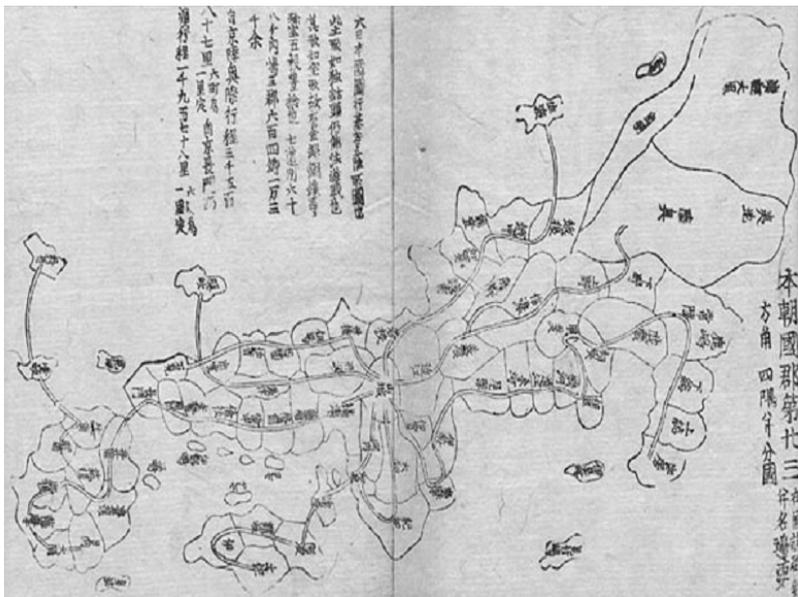
최고의 행기도는 805년에 작성되었다고 전해지는 것이지만, 원도는 이미 없어지고, 현재 전해지는 것은 에도시대의 토우 데이칸[藤貞幹]이 모사한 것이다. 행기도 형식을 지닌 일본지도로는 『연역이십사년개정역지도(延曆二十四年改正輿地圖)』라는 지도가 있다. 행기도 가운데 지도의 형상은 가장 간략하며, 혼슈, 큐슈, 시코쿠는 모두 괴상(塊狀)의 형태를 이루고, 옛날의 시대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형이 아닌, 모두 교토의 하압사(下鴨社)에 있었던 것을 에도시대 중반 무렵 복사한 것이다. 또한 국명으로 805년보다 늦은 823년에 신설된 가가노쿠니[加賀國]이 기재되어 있는 등 연호에는 질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서사(書寫) 연대가 명확한 것으로 가장 오래된 것을 든다면, 가마쿠라(鎌倉)시대 1305년에 복사된 교토 인화사(仁和寺) 소장의 일본지도이다. 『연역역지도(延曆輿地圖)』에 비교하면, 일본의 윤곽은 약간 굴곡이 가해지고, 무츠[陸奥], 테와[出羽]의 끝 부분은 둥글지 않고, 동으로 향하여 크게 돌출하고, 또 키이[紀伊]의 부분은 의식적으로 반도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인화사도(仁和寺圖)』에서는 큐슈, 시코쿠, 추코쿠의 일부를 포함하는 서일본 부분이 파손되어 없어졌다.

카나가와[神奈川]의 카나자와[金澤文庫]에도 『인화사도』와 거의 같은 시기에 모사되었다고 추정되는 일본지도가 있지만, 이것은 동일본 부분이 불완전하다. 또한 주술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일본 주위를 용이나 뱀과 같은 것이 에워싸여 있는 이상한 도안을 제시하고, 게다가 일본의 주

변에는 용(龍), 고려(高麗), 신라(新羅), 당토(唐土), 몽고(蒙古) 등의 국명 이외에 라세츠고쿠[羅刹國] 및 간도우[雁道]의 실재하지 않는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필사지도에 대해서 간행된 최초의 것은 경장판(慶長版) 『십개초(拾芥抄)』 소재의 행기도이다. 『십개초』 토우인사네히로[洞院實熙, (1400년대)]를 작자로 하는 설과 토우인킨가타[洞院公賢, (1291~1360)]이 저술하고, 사네히로[實熙]가 개정 증보했다는 설이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1294의 판권 페이지가 있는 『본조서적목록(本朝書籍目錄)』에 서명이 보이므로 원본의 성립은 그 이전이며, 그 후에 자주 추가하여 기재된 중세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케이초우년간(慶長年間, (1596~1615))에 비로소 간행되었다.

이 케이초우의 행기도는 현재의 『십개초』 사본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본의 지도 형상과 지방의 경계가 역시 동근 곡선으로 그려져 옛날의 형태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케이초우(慶長) 이전의 옛 사본에 있었던 것을 아마도 그대로 원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도와 비교해 보면, 일본의 윤곽선은 다소 출입을 볼 수 있고, 특히 오우(奥羽)지방이 『인화사도』처럼 동으로 확대되지 않고, 북으로 향한 형태를 이루는 등 몇 군데 실제 일본의 형태에 근접하고 있다.



[그림 7-6] 경장판 『십개초』 소재의 행기도

에도시대에 들면서 인쇄기술의 발달에 의해 대량 인쇄된 행기도가 등장한다. 그 대부분이 『십개초』 혹은 『남침부주대일본국정통도(南瞻部州大日本國正統圖)』 계통을 계승한 지도이지만, 사회의 안정에 따른 교통의 발달로 보다 실제의 일본지도에 가까운 지형이 그려지게 되었다. 이 지도 혹은 동일 스타일의 지도가 에도시대 행기도의 기본이 되었다. 케이안[慶安]·쥬우모우[承應]·메이레키[明曆] 년간에 간행된 행기도가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일본도(正保日本圖)』 간행 이후 교통수단과 측량기술의 발달 등도 있어서 보다 치밀한 일본지도가 작성·간행되어 행기도는 실용 이용, 상업 출판의 장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하지만 교육, 예술 분야에서는 행기도가 먼 훗날까지 사용되었다.

3) 행기도의 특색

이처럼 행기도는 중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유일의 일본전도이며, 또한 오랜 기간 동안에 전사(轉寫)를 거쳐 지도에 따라서는 그것이 그려진 시대의 지식도 반영하고, 행기도 상호간에도 다소 차이가 보인다.

예들 들면, 『연력여지도』에는 아와지[淡路]·사도[佐渡]·오키[隱岐]·이키[壹岐]·쓰시마[對馬] 이외에 止之嶋(飛鳥)·伊豆嶋(伊豆大島)·多祢嶋(種子島)·鬼界嶋 등 4개의 섬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머물렀지만, 『십개초도』에는 세토나이카이[瀬戶内海]의 코지마[兒島]·야시마[屋島] 이외에 2, 3개의 섬이 부가되고, 더욱이 『당초제사도(唐招提寺圖)』에는 실재하지 않는 섬도 포함하여 도서의 수는 한층 증가하고, 특히 큐슈의 서쪽에 시가노시마[志賀嶋]·요비코[呼戸]·아마쿠사[天草] 등의 섬이 그려져 있는 것은 원구(元寇)와 대륙과의 교통 관계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또한 『십개초도』에는 히타치[常陸]의 카시마[鹿嶋] 이외에 오우[奥羽]지방에는 이지[夷地]·츠히루오사토[津輕大理], 『당초제사도』에는 동일하게 오우[奥羽]지방 부분에 아이즈[會津]·아키타조우[秋田城]·친슈후[鎮主(守)府]·우소리[宇曾利] 지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오우[奥羽]지방에 관심이 높아진 것을 나타낸 것이며, 특히 이지[夷地]·우소리[宇曾利]의 아이누 관계의 지명을 볼 수 있는 것은 주목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행기도에서는 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들이 표를 늘어놓은 것처럼 중첩된 형태로 배열되고, 따라서 일본 전체의 형태가 둥그스름한 윤곽을 이루고, 다만 오우[奥羽]부분만이 크게 동으로 불룩하고, 일본이 동서로 늘어난 섬이 된 것이 거의 공통된 특색이다. 또한

대부분의 행기도에는 국명 이외에 교통로로서 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5기(畿) 7도(道)로 통하는 도로가 그려지고, 『인화사도』와 『당초제사도』에는 특히 주선(朱線)으로 그어져 있다.

더욱이 『금택문고도(金澤文庫圖)』와 『당초제사도』등 지도에 따라서는 일본 주변에 류큐(琉球)·조선(朝鮮)·중국(中國)·몽고(蒙古) 등의 국명 이외에 라세츠고쿠(羅刹國)와 간도우(雁道)가 기재되어 있다. 라세츠고쿠(羅刹國)는 불전에 의해 전해진 귀녀(鬼女)의 국가이다. 또한 안도(雁道)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지만, 『금택문고도』에는 괴상한 모양의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이러한 공상적인 국가도 포함하여 일본의 주변에 이들 이상한 국가명을 지도에 기재한 것은 소박하면서 원구(元寇)이나 왜구(倭寇) 등이 배경이 되어 생겨난 중세 사람들의 해외의식의 발로를 나타낸 것이다.

4) 조선과 중국에 전해진 행기도

행기도는 일본의 형태를 어쨌든 구체적으로 그린 최고의 지도였기 때문에 해외에도 상당히 일찍부터 전해졌다. 특히 왜구의 내습에 고민했던 조선과 중국에서는 그만큼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행기도를 근거로 한 여러 가지 일본지도가 만들어졌다.

조선에서는 태종 2(1402)년에 중국 중심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라는 세계지도가 제작되었는데, 지도의 오른쪽 아래 바다에 일본이 그려져 있다. 게다가 이 지도 속에는 행기식 일본지도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 지도는 비단 위에 자필한 것으로 현재 교토(京都)의 류큐쿠(龍谷)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니시혼간지(西本願寺) 법주 오타니 코우즈이(大谷光瑞, 1876~1948)가 조선에서 구입한 물품이라고 한다. 일본의 지도는 행기식 일본지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 전체의 윤곽선과 경계선이 매끈한 곡선임과 동시에 일본 여러 지방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외에 시라가와노세키(白河關), 진슈후(鎭守府), 츠카루오오사토(津輕大里), 이지(夷地)의 지명이 있는 것은 행기식 일본지도 그대로이다(秋岡武次郎, 1955, 50).

조선에서 일본지도가 단독으로 묘화, 간행된 최초의 것은 성종 2(1471)년 신숙주의 『해동제국기』라는 서적에 삽입되어 있는 지도이다. 동활자본이며, 단지 지도만은 목판이다. 지도 가운데 일본지도는 조선식 묘법으로 고쳐졌지만, 실은 이것도 행기식 일본지도에 근거하여 그려진 것은 그 지도의 형상, 지도 속의 지명 등에 의해 알 수 있다(秋岡武次郎, 1955, 51). 즉 시마(志摩)가 혼슈(本州)로부터 떨어진 섬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제사도(唐招提寺圖)』와 공통하고 있다. 게다가

가마쿠라도노[鎌倉殿]·후지산[富士山]·비와코[琵琶湖]·효우고우라[兵庫浦]·하카다[博多] 등의 지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신숙주가 嘉吉 3(1443)년에 조선 사절로서 일본을 방문한 때의 지식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오다 타케오[織田武雄, 2007, 29-30]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왜구의 창궐이 극에 달했던 명나라 말기에 일본지도가 다수 만들어진 것은 주목된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된 것은 1530년의 『일본고략(日本考略)』 소재의 일본지도로 아와[安房]·카즈사[上總]·시모우사[下總]가 혼슈로부터 떨어져 하나의 섬을 이루는 등 일본지도로서는 부족한 곳이 있다. 또한 정약중(鄭若曾)이 편찬한 1561년의 일본지도도 상당히 변형되어 있지만, 이것은 호송(胡松)이 증보 간행한 나홍선(羅洪先)의 『광여도(廣輿圖)』, 호종헌(胡宗憲)의 『주해도편(籌海圖編)』에도 받아들여져 있다. 그 외에 일본에 도래한 적이 있는 정순공(鄭舜功)이 1566년경에 저술한 『일본일감(日本一鑑)』에도 그가 일본에서 가져왔다고 생각되는 『당초제사도』와 유사한 행기도가 실려 있다. 이처럼 행기도 계통의 일본지도는 조선과 중국에도 전해졌고, 그 외에 서양의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유럽에까지 전해져 일본지도의 근거가 된 것도 있다.

심정보

참고문헌

- 김추윤, 1998, “행기도(行基圖),” 地籍, 284, 13-19.
 遠藤博, 1994, 測量の歴史, カイヤマガチ.
 日本國際地圖學會編, 1998, 地圖學用語辭典, 技報堂出版.
 長久保光明, 1992, 地圖史通論, 曉印書館.
 織田武雄, 2007, 地圖の歴史-日本篇, 講談社.
 秋岡武次郎, 1955, 日本地圖史, 河出書房.